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장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100 West 49th Ave Vancouver, B.C.V5Y 2Z6에 위치한 랑가라대학은 규모가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정도이며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학교에서 십분 정도 걸으면 langara 49th 스카이트레인 역도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이란 한국에서 그냥 1호선 같은 거예요.</p> <p>시설은 깔끔하고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교내식당에는 팀홀튼이라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자주 애용하였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한국인 15명, 일본인 약 70명, 대만인 5명을 듣기테스트를 통해 5개의 반으로 나눕니다.</p> <p>저는 Cecillia의 반이었고 우리 반은 한국인 4명과 대만인1명, 일본인1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화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과제는 다른 반에 비하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p> <p>3분 토크 내용을 연습해오거나 홈스테이 가족을 인터뷰하거나 저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과제입니다.</p> <p>교재는 랑가라에서 만든 파일로 진도를 나갑니다.</p> <p>파일 크기가 조금 커서 불편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는 디스커버리 밴쿠버, 카약킹, 아쿠아리움, 뮤지엄 오브 밴쿠버, 휘슬러 등이 있습니다.</p> <p>이 중에 따로 돈이 필요한 활동은 없지만 점심이나 간식을 사먹거나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개인용돈을 가져오셔도 됩니다.</p> <p>디스커버리 밴쿠버는 하루 종일 엄청 걸어 다니니까 꼭 편한 운동화와 충분한 물과 점심을 가져오셔야 합니다.</p> <p>카약킹 할 때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반바지나 잘 마르는 바지를 입는 것이 좋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썬글라스나 모자가 필요합니다.</p> <p>휘슬러는 엄청 춥진 않지만 긴팔겔옷이 꼭 필요합니다. 셔츠같은 겔옷 말고 후드 집업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p> <p>그리고 개인적으로 캐나다의 자연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셀카봉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오전과 오후의 기온 차가 아주 심합니다. 오전에는 겔옷을 입고 다녀도 추운데 오후에는 겔옷을 벗어도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덥습니다. 감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반팔을 챙기되 겔옷도 몇 개 가져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녁 10시 이전으로만 다니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10시쯤 되면 아주 어두워지고 가로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p> <p>겨울에는 해가 훨씬 짧아져 저녁 6시 이전에 이미 어두워진다고 합니다.</p> <p>주요거리에 가면 홈리스가 많지만 아주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p> <p>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더라도 무시하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의 홈스테이 집은 2층으로 된 주택이었습니다. 방은 2층에 마련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었습니다.</p> <p>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통금이 11시 반이었고 나머지 날에는 10시 반입니다.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으면 꼭 미리 홈맘에게 알려야 합니다.</p> <p>캐나다 문화 중 가장 맞지 않은 것은 화장실 사용법입니다.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면 바닥에 물이나 머리카락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청소를 그 때 그 때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물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샤워시간은 10분 안팎이어야 합니다.</p> <p>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싸 온 점심을 먹을 때 주로 이용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편이며 별다른 이용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분리수거의 방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p> <p>홈스테이에서는 주로 아침과 저녁을 먹게 됩니다. 집집마다 밥 먹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여쭙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제 홈스테이 가족은 중국계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식 누들이나 볶음밥 등 중국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식사에 대한 것은 집집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게 보편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캐나다는 물이 맑아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한 번 끓여먹는 집도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줍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물갈이 없었습니다.</p> <p>식당의 경우 세금과 팁 둘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p> <p>13불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세금 붙어서 14~15불 정도로 나오고 팁은 10~15% 주어야 하기 때문에 15~16불을 주어야 합니다.</p> <p>처음에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불만이었지만 종종 정말 맛있고 서비스가 좋았던 식당에서는 좋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기분 좋게 팁을 많이 주고 나왔습니다.</p> <p>식당에서 크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부르는 것은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조금만 들고 눈짓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compass카드 덕분에 정말 잘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통카드 같은 것인데 랑가라에서 주는 compass카드는 한 달 패스라 추가요금만 안 나오게 잘 다니면 교통비 안 들어서 좋습니다.</p> <p>하지만 룰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BC는 3개의 존으로 나뉩니다. 학교가 있는 밴쿠버지역이 1존이고 2존, 3존으로 갈수록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p> <p>평일 저녁 6시 반 이전에는 1존에서 2존,3존으로 트레인으로 이동할 경우 미리 추가요금을 카드에 충전하셔야 합니다.</p> <p>그냥 트레인을 타시면 카드가 블락 당해서 홈스테이 오피스에서 고쳐야 해요. 그렇지만 버스를 1존에서 타고 2존,3존으로 꼭 가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없습니다.</p> <p>또한 저녁 6시 반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모든 지역이 1존 가격이기 때문에 충전을 따로 안하시고 그냥 타셔도 됩니다.</p> <p>이외에 버스를 탔을 때 내리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거나 줄을 잡아당기면 stop표시가 전광판에 뜨고 내릴 때는 문을 한번 눌러주어야 열립니다.</p> <p>트레인은 캐나다라인, 엑스포라인 이렇게 두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버스도 버스 앞 전광판에 나오는 곳이 종착역이고 보통 직선코스로 많이 다녀서 편합니다. 몇 번가 무슨 스트리트인지 알면 길치인 저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p> <p>빅토리아 아일랜드를 혹시 가신다면 여기는 compass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daypass를 가서 직접 끊으셔야 합니다. 5불 정도합니다. 페리는 편도 16.7불입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33만원	
기념품	약 43만원	
교통비	약 4만원	페리 왕복 33.4불(3만원)
입장료	약 5.5만원	부차드가든 34.25불/ 스탠리파크 자전거 대여료16.5불
합계	약 85.5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웬만한 사항은 앞에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강조할 사항으로는

1. 캐나다 날씨가 아침저녁은 쌀쌀하고 낮은 덤기 때문에 꼭 가벼운 겔옷, 두꺼운 겔옷 모두 챙겨 가져야 합니다.
2. 미리 홈스테이 가족과 이메일로 연락하셔서 수건이나 샴푸 등을 한국에서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제 홈스테이는 수건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가져갔던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3. 혹시 저처럼 무지하신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를 지도에서 본다고 쳤을 때 가로줄은 숫자로 @@번가라고 나타냅니다. 세로줄은 \*\*스트리트로 나타냅니다.
4. 캐나다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우대해 주기 때문에 버스를 먼저 기다리셨더라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있으면 양보해주세요. 버스의 앞자리는 노약자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앉지 마세요.
5. 유심은 한국에서 사가는 게 더 싸입니다. 전 유심 없이 3주를 살았지만 저녁시간에 홈맘에게 연락하기 위해 데이터무제한 유심을 가진 언니한테 많이 빌려 썼어요. 유심은 데이터가 적은 것으로, 없는 것보단 구입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한식이 드시고 싶다면 Robson street으로 가세요.
7. 공원이랑 해변이 많아서 맥주랑 안주를 사가서 먹고 싶었지만 캐나다는 한국처럼 아무데서나 술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술 사시려면 여권이랑 본인 이름 있는 크레딧 카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카지노 들어갈 때도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캐나다는 내게 너무 막연한 나라였고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캐나다의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기, 영어공부를 할 필요성을 찾기가 이 어학연수에서의 제 목표였는데 저는 제 목표를 200%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기억까지 가득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학기를 이 예쁘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같이 들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인연이 너무 아쉬워서 이번 겨울에 도쿄로 여행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문화 뿐 아니라 일본인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일본 정서나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홈 메이트였던 유이랑은 단순히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홈맘이랑은 더 많은 시간을 같이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같이 리치몬드 야시장도 가고 산책도 다녀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3주는 친구

들과 놀러 다니기에도 바빴던 시간이어서 좀 더 길게 지낼 수 있다면 격일로 쉬면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느낀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캐나다는 정말 이민자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차별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서로 인간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장애인들이나 소수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라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고 인자합니다. 사람들도 배려와 인정이 넘쳐 보이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주는 길다면 길수도,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려고 하는 시점에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웠고 그 새 사귀 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때 너무 슬펐습니다. 삼 주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첫 날 홈맘이 차로 데리러 오셨고 마지막 날도 차로 데려다 주셨는데 공항으로 데려다주시면서 내가 막 얘기하고 있던 찰나 홈맘이 너 첫날 '캐나다 공기 맑네요.' 한 마디 했던 거 기억나냐며 지금은 아주 영어 많이 늘었다! 라고 말씀해주셨었습니다.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꼭 우리 홈맘의 집으로 다시 워킹 홀리데이 갈 거예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퀸 엘리자베스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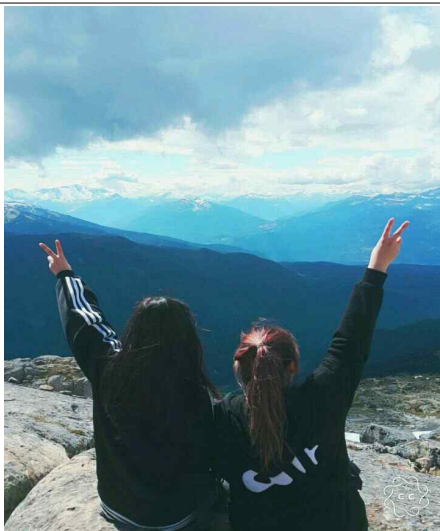
랑가라 대학 내부



부차드가든



딥코브에서 카약킹



휘슬러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타기